

기술적 시장분석

주식시장이 미쳐 때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一目破天)!



SUMMARY

- 국내증시, 단기적으로 120일선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증시, 주요 지수 중 상당수가 머리어깨형으로 진행 중
- KOSPI : 소형주와 의약품, 기계,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단기 관심 필요

[기술적 분석]

김정환

02-768-2129

jeonghwan.kim@dwsec.com

KOSPI의 단기 박스권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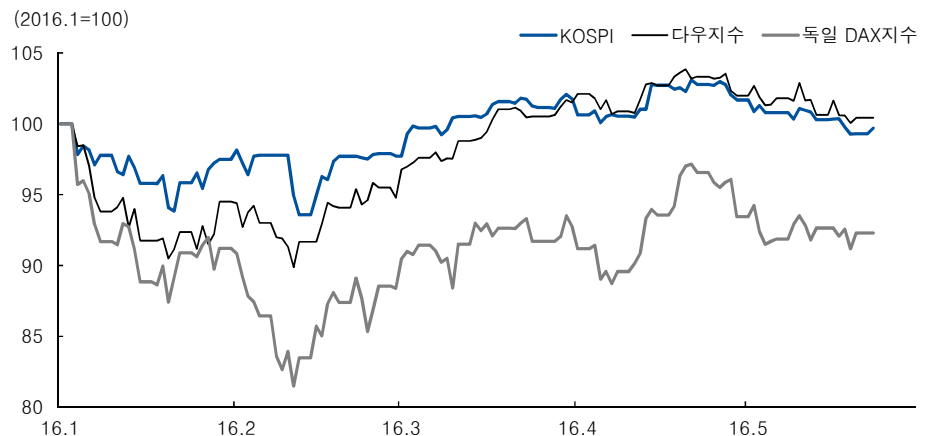
‘일목파천(一目破天)’이란 말이 있다. 중국의 역대 설화집인 <태평광기(太平廣記)>에 나오는데, 일이 미쳐 때를 만나지 못했으니 너무 조급해 하거나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다. 국내증시의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KOSPI의 경우 단기 박스권을 하회하면서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OSPI가 5월에도 조정을 보이면서 연간 수익률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다. KOSDAQ지수는 1% 넘게 상승한 상황이다. 미 연준의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견인할만한 호재들이 좀처럼 부각되지 않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들 역시 매매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국내증시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KOSPI, 120일선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 예상

KOSPI는 지난 주말 일시적으로 120일선을 하회하였으나, 전일 회복하였다. 당분간 120일선을 중심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방향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20일선은 중기 방향성의 바로미터가 되기에 의미 있는 이평선이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지수들 역시 KOSPI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우지수는 60일을 하회한 상황이며, 독일 닥스지수는 5월 들어 120일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다. 조정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그림1>.

그림 1. KOSPI와 다우지수, 닥스지수의 움직임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글로벌 증시, 주요 지수 중 상당수가 머리어깨형으로 진행 중

글로벌 증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주요국의 증시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낙폭과대 지수의 경우 반등에 성공하였지만 어디까지나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지 추세전환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패턴으로 볼 때 주요국 지수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반전형인 머리어깨형이다. 따라서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미 증시에서 S&P500지수는 전형적인 조정패턴인 머리어깨형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 오른쪽어깨를 거의 만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0일선 안착에 실패할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기대는 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그림2>.

미 증시에서 지난 주말 특징적이었던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반등이다.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15% 상승했다. 이를 반영하여 전일 국내증시에서 반도체관련주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패턴상 원형바닥형으로 볼 수 있다.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지만, 급락 전의 박스권 하단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3>.

그림 2. S&P500지수 일간차트



자료: stockchart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3.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일간차트



자료: stockchart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4. 대만 가권지수 일간차트



자료: Qway NEO,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5. 독일 DAX지수 일간차트



자료: stockchart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대만 가권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IT기업이 가권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가권지수는 하락삼각형 완성 후 급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원형바닥을 형성하며 반등에 성공하였다. 하락삼각형이 완성된 가격대까지 상승은 가능해 보이나 그 이상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해 보인다<그림4>.

독일 닥스지수는 2월 11일 이후 이어진 상승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응용된 머리어깨형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0일선을 중심으로 방향성 탐색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이평선이 한 곳에 밀집하고 있어 조만간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제한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그림5>.

KOSPI, 120일 안착과 머리어깨형이라는 난제를 극복해야

글로벌 경제상황이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면서 증시에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악재에는 더욱 민감한 모습이다. 6월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으로 변곡점에 와 있듯이 국내증시 역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익률 방어가 가능한 곳으로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커지면서 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OSPI에서도 소형주

그림 6. KOSPI 소형주 일간차트



자료: Qway NEO,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7. KOSPI 일간차트



자료: Qway NEO,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8. 미 러셀2000지수 일간차트



자료: stockchart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9. KOSDAQ지수 일간차트



자료: Qway NEO,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6>. 현재 패턴상 대칭삼각형으로 진행 중에 있다.

KOSPI의 일간차트를 보면 120일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응용된 머리 어깨형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그림7>. 이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는 것이 반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가적으로 지수 조정이 진행된다면 3월 3일 갭상승 이후의 갭메우기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1,916 ~ 1,985p에서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의약품, 기계,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미 증시에서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강보합권을 보인데 반해 러셀2000지수는 1% 가까이 상승했다. 미 증시에도 조정흐름이 이어진다면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8>.

KOSDAQ시장은 5월 들어, 또한 최근 일주일간 거래소시장에 비해 상대적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증시 조정기에는 KOSDAQ시장의 상대적 강세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0일선과 박스권 하단에 도달한 만큼 단기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예상할 수 있다. 거래량도 양호한 수준이다. 단기적으로는 675 ~ 710p에서의 움직임이 예상된다<그림9>.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